

1114(월) 로마서 1-4장 복음, 성도의 참된 복

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.

바울은 주님께 수탁 받은 복음 그대로를 전했습니다(1:14).

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것을(1:2-4)

성육하신 하나님이 십자가/부활로 성취하신 것입니다.

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(1:16).

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(창3장).

스스로 왕 노릇하며 각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(1:18-25),

창조의 순리와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었습니다(1:26-32).

율법(깨달음/의지/노력)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여

모두가 죄와 심판아래 있게 되었습니다(2:1-3:20).

그러나 <이제는>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(3:21).

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

참 하나님, 참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(1:3-4).

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,

속량하여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(3:24-26).

그러니 믿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(4:2,11,14).

누구든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(3:27,4:3,13,16,18).

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 받지 않았을 때에

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(창15:6,17:24).

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떠올리며

끝까지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(4:18-21,24).

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미 복된 자들입니다.

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 받아

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늘 거하기 때문입니다(1:7).

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(1:17).

나는 성도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?

❶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?

❷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소망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로마서 1-4장